고통, 은혜, 안식, 찬송<룻기 4:13-22>

*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교회를 찾아 부끄럽고 챙피함을 무릅쓰고 온 나오미, 아무 희망 없는 시어머니를 헤세드와 사랑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붓좇은 룻의 신앙,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조건을 가졌지만 순종으로 희생을 베푸는 보아스의 사랑 이 모든 것은 쉬운 것이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한 대가는 엄청나게 존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주 받은 모압여인 룻이었으나 하나님과 시어머니를 향한 헤세드와 붓좇은 믿음 하나로 성경 66권 중에 쓰여진 본문 룻기는 실화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은혜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1) 보아스와 룻의 결혼과 아들의 출생(13)

① 보아스와 룻의 결혼 : 엘리멜렉이 타락하여 모압으로 떠나서 모든 것을 잃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를 붓좇은 며느리 모압여인 룻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까지 8단계,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 와서 우연이와 마침내가 이루어져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는 아무개가 포기한 것을 희생으로 은혜와 의무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백성들과 장로들이 감격하여 칭찬하고 축복하는 9단계 총 17단계를 거쳐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들도 이처럼 주님의 계획과 위대한 역사 속에서 만난것임을 알고 귀중하게 여기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② 아들의 출생 : 당시의 임신과 아들을 낳음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표징이었습니다. 현재도 역시 부부로 맺어 임신하여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창조역사에 동참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임을 알아야 합니다. 보아스와 룻의 아름답고 복된 믿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혼하여 오벳을 낳습니다. 아브라함가문, 유다 가문, 베레스가문에서 다윗과 메시아 가문이 나온 것처럼 여러분도 가문과 가족 관리를 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과 이어지는 가문의 번창을 약속하심을 믿음으로 아름답고 복되게 변해가는 대하드라마를 써 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2) 보아스와 룻의 아들 출생에 대한 여인들의 찬송(14-17)

여인들은 나오미를 향해 찬송하고 축복하며 룻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오벳이라 지어 주는데 이것은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삶과 신앙이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격을 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격과 인간관계속에서 이런 칭찬과 사랑의 매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룻이 낳은 아들은 나오미와는 아무 관련이 없음에도 나오미가 양육하며 기업을 잇게 되는데 불쌍한 나오미는 생명의 회복자로 집안의 대가 이어지는 복을 누립니다. 이것은 양자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본 자녀는 이스라엘이고 우리는 천하고 버려진 자녀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양자가 되어 본 자녀와 같은 기업을 받아 누리는 양자의 법칙,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어 참 감람나무의 영양을 공급받는 접붙임 법칙으로 우리는 이런 용서와 양자와 접붙임의 은혜를 알아야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처럼 축복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감사의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아무개는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고 욕심으로 살았기에 형제를 구원하지 못했지만(시편49:6-8) 보아스는 희생과 사랑으로 선택했기에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복을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을 하늘에 투자하여 보아스의 삶을 살고 하늘나라를 사모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3) 베레스의 계보(18-22)

보아스는 고엘로 룻과 계대결혼이기에 낳은 오벳은 분명 엘리멜렉의 아들로 기록이 되어야 함에도 보아스의 아들로 기록이 되어 오벳은 보아스가 돈 주고 산 엘리멜렉의 재산과 보아스의 재산 모두가 오벳의 소유가 됩니다. 오벳의 윗대로 올라가면서 모두 외아들로 이어 끊어질 듯 이어질 듯 이어져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일과 역사는 아슬아슬하고 긴박함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왜 독생자 예수로 오셨을까요? 예수 그 한사람의 이름위에 구원이 있고 예수 그 한사람에게 영원한 복이 있기에 예수 그 한사람을 통해 예수를 알고 복을 누리며 진리를 발견하고 은혜를 알아 그 분을 닮아가며 그 분의 기쁨이 되면 인생을 완벽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망한 엘리멜렉의 가문이 보아스의 가문에 접붙여져 아브라함과 유다와 다윗과 메시아 기문으로 이어진 것처럼 자격없는 우리는 예수님의 양자가 되고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아 천박한 집안이 아닌 예수의 집안이며 예수님이 신랑이고 하나님이 아버지이며 천국이 내 나라이고 하늘의 축복이 내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씨,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의 씨만 있으면 입김으로 날리는 가볍고 작은 겨자씨가 자라 새가 깃드는 큰 거목이 될 수 있음을 믿고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처럼 반응하셔서 위대하고 멋진 삶을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